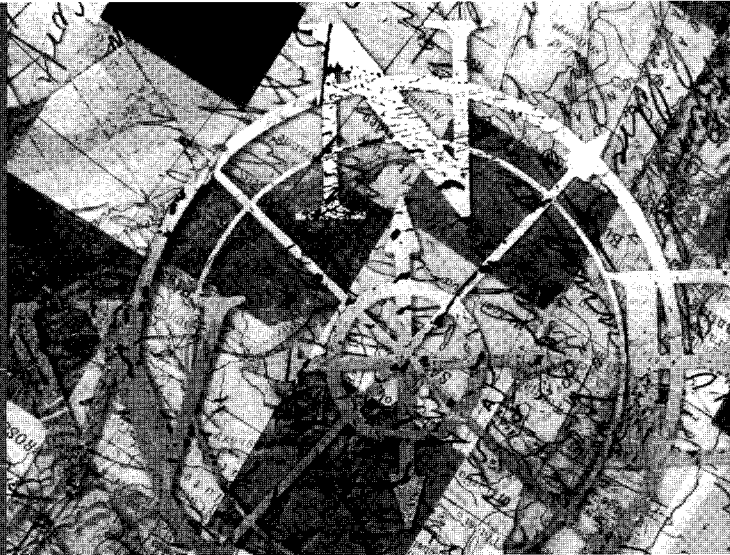


※본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2월 11일 발표한
최신 연구자료임

오리산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



오리산업의 개요

◎ 오리산업의 특성

1 오리산업의 개요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리 산업의 성장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리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7년 오리 사육 수수는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호당 사육수수 또한 1천수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중소규모 계열업체의 사육물량 확대에 의한 사업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계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체 사육농가의 80%에 달하는 사육농가들이 계열화에 편입되었다.

특히 일부 계열업체의 종자오리 사육을 포함한 일관 생산체계의로의 전환으로 계열 생산 형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추진된 종자오리 개량사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폐킨종 종자오리 사육물량의 60% 내외가 혈통이 증명되는 종오리(Parent Stock, PS)로 교체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외식소비 측면에서는 소규모 외식업소들의 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반해 전문화된 대형 외식업소로의 소비편중 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가공품 소비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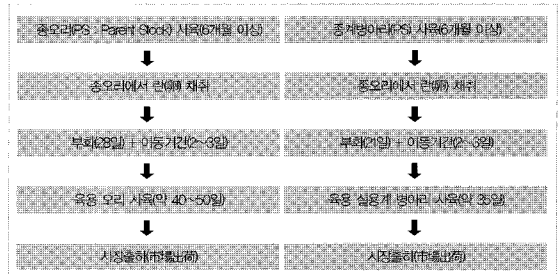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오리 산업은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생으로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며, 2008년의 HPAI 재발로 다시 위기를 맞았다. 2008년 4월 1일의 3차 HPAI 발병 이래 같은 해 8월 15일 HPAI 청정국 선언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와 계란에 비해 오리고기의 소비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었다.

이는 오리고기 전문 취급점인 가든형 식당이 오리고기의 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여타 육류 판매로 업종 전환을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 오리의 생산과정 - 오리와 육계의 생산과정

【표 1】 육용오리와 육계 생산 주기



PS(종오리)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입되며, 육용 종계와 생산 주기가 동일하다. 종오리는 6개월 이상 사육 후 종란을 채취한 다음 부화장에서 부화기간 28일 거친 후 사육농장에 분양된다. 분양된 육용 오리는 육계의

사육일수인 평균 35일보다 더 긴 40~50일 동안 농장에서 비육한 후 시장에 출하된다.

육용오리 생산과 육계 생산 과정을 비교해보면, 종오리와 종계(PS)의 종란생산과정은 같으나 부화과정에서 오리가 약 1주일 늦게 부화하며, 출하시점까지의 사육일수에서 현저한 차이(최소 5일~최대 15일)를 보인다.

3 육계 산업과의 비교

오리 산업은 육계와 비슷한 산업 육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오리 산업 생산액은 5,824억 원으로 육계 생산액 10,275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오리고기 1인당 소비량은 2,47kg으로 닭고기의 2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7년 기준 오리 사육수수는 육계의 1/6 수준에 불과한 반면 사육호수는 육계보다 4배 이상이어서 육계 산업보다 생산농가의 규모화 정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오리와 육계산업 규모비교 ▶ 2007년 기준

구분	오리 산업(A)	육계 산업(B)	A/B(%)
농업생산액(억원)	5,824	10,275	56.7
국내 생산량(톤)	119,065	380,362	31.3
1인당 소비량(kg)	2.47	8.95	27.6
PS입식수(수)	179,160	5,844,930	3.1
연평균 사육수수(천수)	10,513	66,721	15.8
사육호수(가구 수)	7,184	1,643	437.2
수입관세율(%)	18	20	90.0
수입량(톤)	789	60,030	1.3
수출량(톤)	-	5,689	0.0

※주: 관세율은 냉동 가금육(절단)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오리협회 내부자료

지속적인 계열화로 오리 산업은 도압수수 중 약 80%(육계는 도계수수의 88%)를 계열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원종오리(GPS)는 국내에 전무한 상태이다. 의무자조금 사업의 경우 육계는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오리업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육계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관측사업이 시장의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 있으나, 오리의 경우는 관측사업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오리 산업의 경우 농가의 규모화, 계열화 등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육계보다 발전이 더디며, 정책의 제도 지원에 있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육수수 현황(現況)

1 사육규모 변화

1990년대 오리 사육수수는 연평균 34% 증가하면서 1991년 1백 40만수였던 사육수수는 1999년 4백80만수에 달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대 들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2007년 오리 사육수수는 2000년의 5백만 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천51만수에 달하였다. 호당 사육수수는 1990년대 36% 증가율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호당 오리 사육수수는 2000년의 395수보다 크게 증가한 1,463수이다. 이와 같이 오리 사육수수가 증가한 반면 사육호수는 감소하고 있어 농가의 규모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오리업계에서는 사육규모 2,000수를 기준으로 전업농과 부업농을 분류하고 있는데, 2,000수 이상의 오리 사육규모가 전체 사육수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97.4%까지 증가한 반면, 2,000수 이하 농가에서 사육하는 사육수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3】 오리산업과 육계산업 비교

구분	오리 산업	육계 산업
계열화 정도	도압수수의 약 80%	도계수수의 약 88%
GPS 사업 의무자조금 관측사업	원종오리 사업 추진 중 추진 시기 요원 2010년 이후에나 가능	2007년 원종계 수입수 158천수 2009년 사업 추진 예정 육계 수급 조절 기능

2 지역별 사업현황

오리의 지역별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에 사육 밀도가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산지에서의 오리 소비가 왕성하였으며, 오리 농법이 꾸준

【표 4】 연도별 사육수수 및 사육호수

연도	사육수수	사육호수	호당 사육수수	2,000수 이상 사육호수(%)	2,000수 이상 호당 사육수수	2,000수 이상 비중(%)
2000	5,133,511	12,986	395	525(4.0)	8,805	90.0
2001	6,715,554	12,845	523	626(4.9)	10,072	93.9
2002	7,823,542	11,679	670	658(5.6)	11,306	95.0
2003	9,017,280	9,987	903	653(6.5)	13,324	96.5
2004	8,265,580	8,485	974	592(7.0)	13,558	97.0
2005	8,388,747	8,921	940	607(6.8)	13,393	97.0
2006	9,386,190	8,456	1,110	702(8.3)	13,024	97.4
2007	10,513,308	7,184	1,463	819(11.4)	12,478	97.2

※주: 2,000수 이상 사육호수에서 괄호 안은 전체 사육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가계축통계 각 연도.

【표 5】 연도별 생산성 비교

연도	출하일령(일)	출하체중(kg)	사료 요구율	폐사율(%)	부화율(%)
2000	44	2.95	2.37	10	65
2001	46	2.96	2.36	10	65
2002	49	3.09	2.26	10	67
2003	47	3.10	2.25	10	67
2004	47	3.10	2.25	9	70
2005	42	2.97	2.25	8	70
2006	44	3.05	2.19	8	73
2007	44	3.10	2.19	7	75

※주: 사료 요구율은 육용오리 생체중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량

※자료: 한국오리협회 내부 자료

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전남, 전북, 충북지역에서 전체 오리의 80% 이상을 사육하고 있다. 전남 지역의 사육호수 비중은 전체의 18.5%에 불과하지만 사육수수가 5백만 수에 달해 전체의 49.5%를 차지하며, 전북의 오리 사육 규모는 전체의 20.4%, 1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청둥오리라고도 불리는 토종오리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의 정착으로 점차 사육수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경우 통계의 미비로 정확한 사육규모를 알 수 없지만 일반 폐킨종 오리 사육물량의 10~15% 내외가 오리농법을 위한 새끼오리 생산과 오리알 판매 및 일부 육용오리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육용목적의 토종오리 대부분은 전남지역에서 사육되고, 오리알 및 오리농법에 이용되는 새끼오리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다.【표 4, 참조】

◎ 오리 농가의 생산성 및 수익성

1 생산성(生産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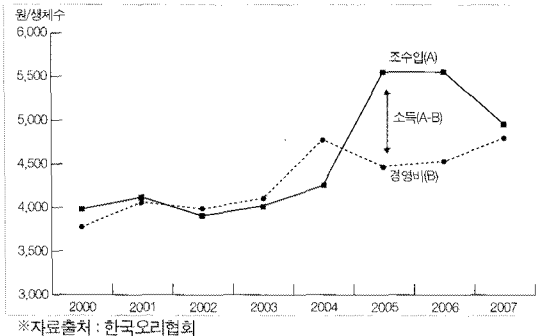
국내 오리 산업의 생산성은 PS 종자오리로의 교체가 시작된 시점인 2004년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리 폐사율의 하락과 종란 부화율의 현저한 향상에 의한다. 육용오리의 경우 출하일령이 계절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오리 출하시 가격이 약세일 경우 농가는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에 따라 출하일령과 생산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계절별 평균 출하일령을 살펴보면, 봄의 경우 38~40일, 여름 45~50일, 겨울 43일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익성(收益性)

오리의 수당 수익성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HPAI 발생으로 오리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새끼오리 가격과 사료비가 상승하면서 2004년 수당 소득이 부의 수치인 -529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2005년에는 오리 소비가 증가하여

조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경영비가 다소 감소하면서 오리 수당 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1,081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6년 1,028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HPAI가 다시 발생하면서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5. 참조】

【도표 1】 연도별 오리수당 수익성 비교



【농가 사례조사 1】

전북 정읍 B농장은 S사의 계약사육농가로서 1만수 사육규모로 현재 입식수수는 8천수, 출하시 평균 생체중은 3.2kg, 평균 출하일령은 45일, 사료 요구율은 2.25kg이다. 2007년까지는 연간 8~10회전을 하였으나, 2008년에는 6회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육규모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계약사육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판로 걱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계열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농가 사육비는 지급방식과 업체별로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1,000원 정도이며, 이중에 30~35%(동절기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약품비, 연료비 등)으로 소득은 수당 650~700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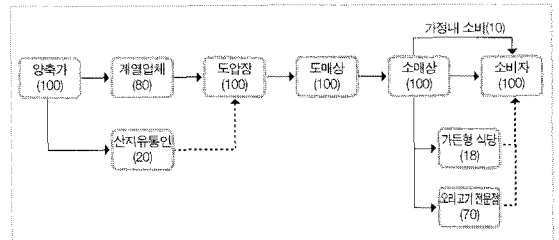
그러나 계열업체와의 일방적인 종속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향후 계열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농가단위의 조직체 구성으로 계열업체와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오리사육의 장점으로 소규모 투자대비 소득이 높으며, 회전율이 매우 빠르나, 환경문제인

오리분뇨 처리는 향후 과제로 남을 것으로 지적했다. 오리업계뿐만 아니라 축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문제는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으로 보고 있다.

【농가 사례조사 2】

충북 음성 A농장은 M계열업체의 계약사육농가로서 사육규모는 연간 20천수, 현재 입식수수 6,800수, 출하시 평균 생체중량 3.0~3.2kg, 평균 출하일령 40~45일, 사료 요구율 2.0~2.3kg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전인 2007년 연간 회전율은 8회전을 기록하였다. 이 농장의 경우 HPAI 발생이후 오리고기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육규모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계약사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계약 내용의 불만, 업체와의 종속관계 특히,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을 들고 있다. 계열업체의 수수료 지급방식은 사료 효율을 고려한 절대평가, 농가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대평가가 있으나, 사료가격 상승 후 사료품질이 크게 저하되면서 농가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표 2】 오리 유통경로



※주: 소매상 단계에서의 비중(%)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결과임

◎ 오리 유통구조와 계열화 현황

1 유통 경로(流通経路)

육용오리는 육계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계열화가 이루어져 시장 유통물량의 약 80%를 계열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유사계열 등 산지 유통인이 담당하고 있다. 계열업체와 산지 유통인이 수집한 오리는 도입장을 거쳐 도매상과 소매상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산지유통인의 오리 수집 물량도 계열업체의 도입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상은

대부분 계열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매 단계에서는 가든, 오리 전문점의 소비가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소비의 외식편중 현상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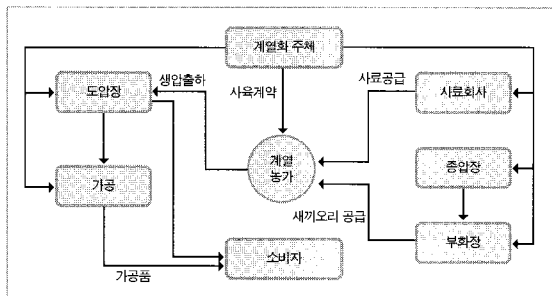
2 계열화 방법(系列化方法)

새끼오리, 사료, 약품 등 생산자재를 계열업체가 사육농가에 공급해 주면 농가는 소유하고 있는 사육시설과 기술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 육용 오리가 일정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을 담당한다. 사육농가는 사전에 정한 사육 수수료를 계열업체로부터 지급받으며, 사육된 오리는 도합장에서 도축과정을 거쳐 오리고기로 상품화된다.

농가의 계약사육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계약 내용의 불만, 계열업체와의 일방적인 종속 관계, 특히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을 들고 있다. 수수료 지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대부분의 계열업체는 사료 효율을 고려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만 농가의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대평가를 채택하고 있다.

계열화에 있어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질 저하문제도 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수료 지급방식에서 최저 지급액 보장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3] 오리 계열화 방법



◎ 오리 수급 현황과 전망

1 수급 현황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국내 오리 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왔다. 1994년 26,361톤이던 국내 생산량이 1997년 12월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제한 조치 이후 사육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79,821톤이 되었다. 2007년 국내 오리고기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 119,065톤, 수입물량 789톤 등 총 119,854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4년 소비량 97,270톤에 비해 23.2% 증가한 수준으로, 과거 HPAI 발생으로 감소했던 소비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국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47kg로 지급률 99.4%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오리고기 생산·수입·소비량 변화

연도	국내생산(A)	수입량(B)	수출량(C)	1인당 소비량(kg)
1994	26,361	3,323	8	0.66
1995	35,203	4,808	68	0.88
1996	43,894	7,971	160	1.13
1997	51,898	7,332	118	1.28
1998	54,460	2,171	34	1.22
1999	72,455	2,064	112	1.59
2000	79,821	3,764	221	1.77
2001	83,102	5,069	440	1.84
2002	106,866	1,131	620	2.24
2003	103,386	2,273	357	2.19
2004	98,201	519	1,450	1.99
2005	112,870	57	590	2.32
2006	105,275	59	361	2.17
2007	119,065	789	-	2.4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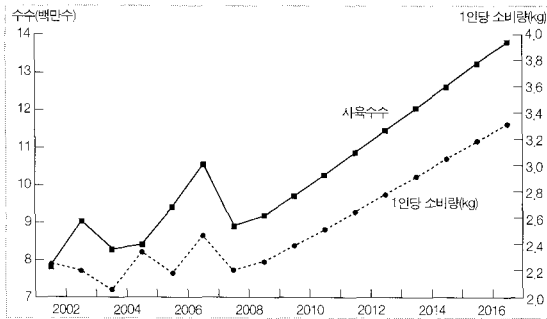
국내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오리고기 수입은 1996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2006년 오리고기 수입량은 56톤으로 최소치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789톤으로 2006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1~8월까지 오리고기 수입량은 183톤으로 전년 동기기간보다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HPAI의 여파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2004년 이전까지 냉동 오리고기 수입은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나 2004년 말 이후 중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서, 2007년부터 대만으로 전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거위 및 오리의 간(푸아그라)이 호텔용으로 주로 수입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오리고기 수입 시장 점유율은 대만 78.9%, 미국 16.8%, 프랑스 4.3%순이

다. 중국의 경우 HPAI 상시 발생국이기 때문에 주로 열처리된 훈제 및 가공품이 수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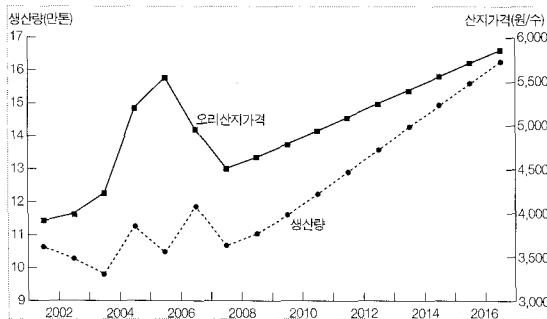
오리고기 수출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나, 부산물 요리 수요가 높은 중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04년 오리의 해외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매한 물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었다.

【도표 4】 오리 사육수수 및 1인당 소비량 전망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표 5】 오리 생산량 및 산지가격 전망



※주: 오리 산지가격과 사육수수는 KFDA-COMO유계부문을 참고하여 모델을 구성함. 2008년 이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생산량은 농림수산식품부, 오리가격은 한국오리협회

2 오리고기 공급 전망

2008년 종오리 입식수수 증가로 2009년 오리 사육수수는 2008년보다 약 3.3%증가한 910만 수로 전망된다. 또한 사육수수 증가로 2009년 오리고기 국내 생산량은 2008년보다 증가한 11만 톤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2017년 국내 오리고기 1인당 소비량은 증가세

가 예상되며, 오리 산지가격 또한 수요 증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산업의 문제점

◎ 오리산업의 생산단계

1 국내 원종오리(GPS) 미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오리 수출국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출 중단으로 국내 오리고기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실제로 2005년 유럽 전역에 HPAI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산란 종계(PS) 수입이 예정보다 지연된 사례가 있다)

2 생산농가 관리 미비

국내에서 3차에 걸쳐 발생한 HPAI는 닭 농장은 물론이고 오리 농가에서도 발생하였다. 오리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육계보다 규모화가 덜 진전되어 사육시설이 영세한 농가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농가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 유통 및 소비단계

1 오리고기 소비의 외식 편중 심화

오리고기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소매단계에서는 가든, 오리 전문점의 소비가 전체의 88%를 차지하여 소비의 외식 편중 현상이 심하다.(소비자 조사 결과, 오리고기 소비 장소로 오리전문점(70%)과 가든형 식당(1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정 내 소비는 10%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 내 오리고기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급식과 군납 등의 다양한 대량 소비처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오리고기 소비량 증가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2 외국산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유통

외국산 냉동 오리고기는 국내산과 비교하여 품질과 맛

【표 7】 월별 소비(도입)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지수	76.8	66.9	89.2	89.3	102.6	114.1	125.5	119	103.8	112.4	94.2	106.1
비고							초복, 중복	말복				

*주: 도입된 오리가 모두 소비되는 가정 하에 소비지수는 2007년 월평균 도입수수를 100으로 설정함

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가늠형 식당, 오리고기 전문점 등에서 외국산 냉동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져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3 오리고기 비수기 소비 위축 심화

월별 도입 실적을 이용한 소비지수를 살펴보면, 오리고기도 닭고기와 같이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식품이므로 비수기에는 과잉 생산의 부담이 있다. 월별 소비지수를 바탕으로 2007년 기준 5월 이전에는 연평균 도입 실적 기준(100)보다 감소하며, 특히 2월의 경우 평균 도입 실적대비 최고 33.1%까지 소비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참조】

◎ 오리 관련 통계 부족

오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관련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육수수와 생산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주기가 1년 단위로 공표되어 적시에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외의 자료들은 한국오리협회에서 발표되나 불확실한 자료가 다수이다. 특히, 배합사료 생산량 자료는 품목별 정의가 확실하지 않아 오리 농가조차도 혼돈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오리산업의 발전방안

◎ 오리 산업 SWOT 분석

1 오리 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인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오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참살이(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의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전체 응답자 499명 중 오리고기를 싫어한다는

응답자는 35명(7.0%)에 불과하며, 응답자의 391명(77.4%)이 향후 오리고기 소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오리 산업의 향후 성장 여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지속적인 오리 산업 계열화로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강점으로 들 수 있다.

2 오리 산업의 약점과 위협요인

오리 산업의 다양한 강점과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양한 약점과 위협요소가 내재해 있다. 원종오리(GPS) 미보유, 종오리 및 오리 생산능가 관리 미비, 소비의 외식 편중 심화, 오리 관련 통계 부족 등은 오리 산업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GPS 보유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의 요인에 있어 현실적으로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HPAI 발생 상시화 가능성,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은 오리 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오리 산업 발전 방안

1 생산단계

【표 8】 오리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 건강·다이어트 식품인기 * 높은 계열화 정도	약점(Weakness) * 원종오리(GPS) 미보유 * 종오리 및 오리 생산능가 관리 미비 * 소비의 외식 편중 심화 * 오리 관련 통계 부족
기회요인(Opportunity) * 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가	위협요인(Threat) * HPAI 발생 상시화 가능성 *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1 국내 원종오리(GPS) 도입 사업 추진



국내 오리업계에 안정적인 병아리 공급과 사육의 안정을 도모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종오리(PS)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한국오리협회를 중심으로 원종오리(GPS) 도입 사업이 진행 중이다.

원종오리의 도입은 향후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의 경영 개선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종오리 수입의 대체효과와 수입·통관·검역 등의 제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② HPAI 대비 상시 방역체계 구축 필요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전 응답자의 47.2%(235명)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이 오리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3차에 걸친 HPAI 발생으로 직·간접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였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방사 오리에 대한 특별관리 감독체계 설정 등 오리 특성에 적합한 방역체계 구축은 소비자 신뢰 회복의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서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③ 종자오리 체계적 관리 필요

2008년 11월 현재 전국 30여 개 종오리장(부화장)에서 약 26만수의 종오리가 사육중이며, 6,000여 농가에서 800여 만수의 실용오리를 사육 중에 있으나 실용

오리의 종오리 이용 등으로 인해 생산 수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종오리 등록제도의 경우 질병예방 관리와 경제능력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제도의 조기 실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금수급안정위원회(한국오리협회)에서 종오리 DB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종오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사육 및 공급, 질병 발생 동향 등의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급 예측시스템 가동으로 수급조절 기능의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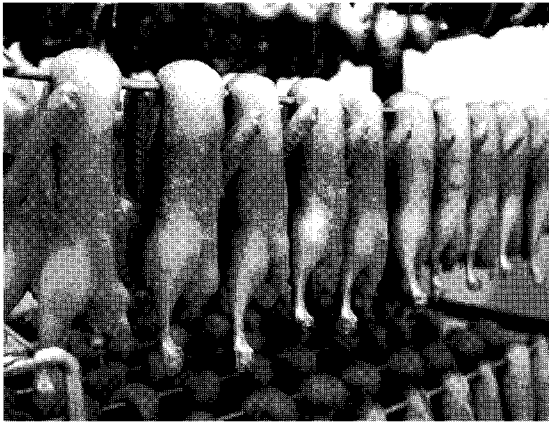
2 유통단계

① 소비 촉진을 위한 오리 자조금 조성 사업 필요

소비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4%(391명)가 향후 오리고기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하였다. 오리고기를 보양식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인 식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조금 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한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와 제품 개발 연구 사업에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소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오리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리고기 선호 요리의 대부분이 훈제(46.2%)와 구이(37.2%)로 편중되어 있으며, 기타는 탕, 전골, 찜 등으로 16.5%를 차지한다. 오리의 경우도 쇠고기 등심이나 돼지 삼겹살과 같이 가정 내에서 구이용으로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과 배달 중심의 통닭과 같은 신규수요 창출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요 축종들의 소비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오리의 경우 보신용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탈피하고 상시 섭취가 가능하게 될 경우 HPAI가 발생하더라도 낮은 수요 탄력성을 바탕으로 현재보다는 소비변화가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업계에서



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조급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진행이 더딘 경향이 있다.

② 포장유통 의무화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에서의 외국산과의 구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업장 명칭 등의 표기를 바탕으로 하는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포장유통 의무화의 경우 현재 1일 도축두수 5만 수 이상 도축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가공·포장단계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가든형 식당과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③ 오리고기 수출 기반 확대 노력

오리고기의 계절적 국내 수요편중 현상을 고려하여 해외수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출 촉진사업을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중점사업으로 정례화하여야 한다. 여름철 수요 집중 뒤에 오리고기 비수기인 9월 이후에 가슴살과 다리부위 위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나, 낮은 현지에서의 제품인지도로 수출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현지 프로모션 및 바이어 초청 행사 실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등

의 지속 수행으로 수출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부산물 요리 중심인 중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기타 사항

① 오리관측으로 수급 안정 도모 필요

최근 오리 산업의 외형적 성장으로 국내 축산업에서 한육우, 젓소, 돼지, 닭에 이어 5대 축종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열업체와 농가의 수급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리 산업의 경우 종오리 수입수수, 육용오리 생산수수, 생산 잠재력 추이 등을 추정하면 수급 안정 도모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② 농가와 계열업체의 관계에 대한 논의 필요

농가 조사 결과, 오리 농가의 계약사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계열업체와의 일방적인 종속관계 특히,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수수료 지급방식과 정산 지연 등 농가와 계열업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표준축사 설계도 제공

오리축사는 임의 또는 닭 축사의 설계도를 원용하여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표준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품 및 시설개보수 등의 정책적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표준축사 설계도 도입과 제공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